

|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I 제7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7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④	2	35	④	2	35	④	2
2	③	3	19	②	2	36	③	2	36	②	2
3	①	2	20	①	2	37	②	3	37	②	3
4	⑤	2	21	⑤	3	38	④	2	38	②	2
5	③	2	22	②	2	39	④	2	39	③	2
6	①	2	23	④	2	40	⑤	2	40	⑤	2
7	③	2	24	③	2	41	②	2	41	③	2
8	⑤	3	25	①	2	42	③	2	42	①	3
9	③	2	26	③	2	43	⑤	3	43	③	2
10	①	2	27	①	3	44	④	2	44	④	2
11	④	2	28	②	2	45	②	2	45	③	2
12	②	3	29	④	2						
13	⑤	2	30	⑤	2						
14	④	2	31	⑤	3						
15	⑤	2	32	③	2						
16	②	2	33	⑤	2						
17	⑤	3	34	④	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7차 예비평가 해설

*** 바로잡습니다.

파이널I 제5차 예비평가 문제지 ‘언어와 매체’ 35번 문항의 ⑤번 선지를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동사의 관형사형에 나타난 어미의 형태가 같더라도 그 시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겠군.’으로 수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편집 과정에서 엄밀히 검토하지 못해 수험생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공통과목 •

[1 ~ 3] 독서문

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독서법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류를 바로잡고도 뜻이 통하지 않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이의역지의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는 이의역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고 자신의 주장을 세워야 한다.

[오답풀이] ① 이상정에 따르면 문자를 읽고 이를 마음으로 되새기는 등의 이의역지를 할 수 있다. ② 오히려에 따르면 이의역지를 하는 과정에서는 독자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는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③ 맹자에 따르면 이의역지를 할 때는 낱글자으로써 말뜻을 해치거나 말 뜻으로써 저자의 뜻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 ⑤ 오히려에 따르면 자기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일관하는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의역지를 해야 한다.

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무쇠 관문에 가로막힌 격’은 입과 눈으로만 글을 읽어 저자의 뜻을 마음으로 살피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이상정은 눈으로 읽은 것을 마음으로 곱씹어야 언어의 이면에 있는 저자의 오랜 숙고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쇠 관문에 가로막힌 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문장의 꾸밈에 힘을 쏟는’ 것은 저자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공명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언어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므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어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입과 눈으로만 글을 읽는 것에 그치면서도 이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리를 구하려는 마음 자세로 볼 수 없다. ④ ‘눈이 책의 행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저자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눈으로만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로 관통하는 뜻을 구하려는 태도로 볼 수 없다. ⑤ ‘천하의 쓸모없는 재주’는 입과 눈으로만 글을 읽을 뿐인 것을 말한다. 이는 독자로서 의심을 품는 것과는 무관하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로 경전을 읽으며 한정된 분야의 독서를 하던 옛날과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학생은 오늘날의 독서법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새로운 독서법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은 자신의 문제점을 반성

하고 있지 않다. ④ 학생은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⑤ 학생은 새로 알게 된 독서법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4 ~ 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37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행정 행위를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과 구분의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 그 종류를 확정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행정 행위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에서는 행정 행위의 한 가지 사례인 건축 허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③ 행정 행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④ (가)와 (나) 모두 행정 행위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인과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자유권은 공익을 위해서 법규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지, 행정 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 기관은 허가 제도를 통해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행정 기관이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량 행위에 대해서일 뿐,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행정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며, 이때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특정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뿐 아니라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기본권 관련성과 공익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속 재량 행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에서는 기속 행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⑤ 본질이 다르지만 법규에서 다를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6. [출제의도] 특정 진술의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이유는 행정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사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속 행위의 경우, 그 행사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재량 행위의 경우, 그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 또는 남용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위법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부당한 것일 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행정 행위는 기속 행위이든 재량 행위이든 상관없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③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에 따라서 소송의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는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⑤ 기속 행위는 위법한지의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재량 행위는 위법한지의 여부뿐 아니라 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일반적으로 재량 행위이지만, 특별한 사정하에 엄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기속 행위로 해석되어 재량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ㄷ. 법규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 행위로 해석된다면, 이는 재량 행위로 해석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오답풀이] ㄱ. 건축 허가를 포함하는 허가는, 기존에 없던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정 행위이다. ㄴ. 중립적 표현으로 규정된 행정 행위뿐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행정 행위 역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지문에 제시된 다양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중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로부터 법원의 입장에 대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복리 행정의 관점에서는 건축 허가를 통해 건물주가 얻는 사익과 주민들이 침해받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衡量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기관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로 볼 때 복리 행정의 관점에서 비교衡量을 하는 주체는 행정 행위를 하는 행정 기관이다. 법원이 비교衡量을 통해 행정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기부금에 대한 부관2를 덧붙이는 것은 위법하다. ② 2006년 대법원 판례는 허가를 기속 재량 행위로 본다. 즉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속 행위와 동일하므로, 부관2를 덧붙이는 것은 위법하다. ③ 질서 행정의 관점은 위험의 방지를 건축 허가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 방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관1을 덧붙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하지만 질서 행정의 관점에서 건축 허가 행위는 실질적으로 기속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 방지 요건과 무관한 부관2를 덧붙이는 것은 위법하다. ④ 201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발 행위가 허가되었다면 인허가 의제를 적용하여 건축 허가 역시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관1과 부관2를 덧붙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가까운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불거지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㉓에 쓰인 ‘불거지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06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새로운 무선 통신 기법은 고성능을 발휘하는 방법이지만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며 열도 많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전력을 덜 쓰고 열도 덜 발생하는 차세대 통신 소자가 필요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개별 전자들은 모두 전하를 띠고 있다. 아울러 스핀도 지니는데, 전자들은 각각 업 스핀과 다운 스핀 중 하나의 방향을 지닌다. ③ 스핀 전달 토크는 거대 자기 저항 효과의 반작용에 해당한다.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자화 방향에 따라 스핀 분극 전류를 만드는 것이라면, 스핀 전달 토크는 스핀 분극 전류로 자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④ 자성 금속의 자화 방향은 전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거대 자기 저항 효과에서 특정 스핀의 전자들을 반사시키는 것 등에서 그러하다. 이는 전자들이 스핀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⑤ 수 GHz의 초고주파 통신 신호는 나노초 수준의 주파수 단위를 지니고 있다. 이는 10억 분의 1초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상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거대 자기 저항 효과는 두 자성 금속의 자화 방향이 평행한지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자성 금속의 자화 방향과 일치하는 스핀을 지닌 전자들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화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스핀을 지닌 전자들은 해당 자화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자성 금속에 반사된다.

[오답풀이] ① 거대 자기 저항 효과 역시 스핀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거대 자기 저항 효과 역시 스핀트로닉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스핀 분극 전류만 남는 시점은 두 개의 자성 금속 중에서 첫 번째 자성 금속을 통과했을 때이다. 스핀 분극 전류의 전자들이 두 번째 자성 금속을 거의 통과할 수 없어서 저항이 상당히 큰 것이다. ③ 스핀 분극 전류 속 전자들이 자성 금속의 자화 방향을 바꾸는 것은 스핀 전달 토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스핀 전달 토크는 전자들이 자성 금속을 통과하면서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때 상당히 큰 저항이 유발되는 것도 아니다. ⑤ 두 자성 금속이 평행하지 않을 때에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나타난다. 평행한 자화 방향이 전자의 스핀 방향 중 어느 방향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저항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마이크로파 발진기라는 스핀 통신 소자가 소개되어 있다. B|X|A의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다. A는 자유 상태이며, A와 B 모두 자화 방향이 같은 상태임

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먼저 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통신 신호를 생성한 후 그보다 낮은 주파수의 통신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작업’이다.

[정답풀이] B쪽 하단에서 A쪽을 향해 보통의 전류를 흘려보냈을 것이며, B를 통과했을 때에는 다운 스핀의 전자들만 남은 스핀 분극 전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운 스핀의 전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A의 자화 방향이 이와 일치하는 만큼 스핀 전달 토크가 전혀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 스핀 전달 토크는 자유 상태에 있는 자화 방향이 스핀 분극 전류 속 전자들이 지닌 스핀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전자들이 통과하면서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기장을 먼저 가하여 A의 자화 방향이 업 스핀에 일치하는 상태가 되면 이어서 스핀 전달 토크가 유발되고, 자화 방향이 계속 회전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B쪽 하단에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보통의 전류이다. 스핀 분극 전류를 구성하는 전자들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속 B가 스핀 분극 전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③ 자화 방향이 회전하도록 하려면 A에 가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전자의 업 스핀 방향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스핀 전달 토크에 의해 A의 자화 방향이 다운 스핀 방향에 일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업 스핀 방향으로 돌려서 스핀 전달 토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전류를 흘려보내면 B를 거치는데, B는 다운 스핀에 일치하는 자화 방향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X에는 주로 다운 스핀의 전자들이 A를 향해 이동할 것이다. ⑤ 지문에 따르면 특정 전류의 세기에 부합하는 특정 세기의 자기장을 가하여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하는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이는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더 빠르게 회전하도록 하여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려면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를 모두 높여야 한다. <보기>의 ‘작업’은 주파수를 낮추는 것이므로 전류의 세기를 유지한 채 자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모두 약하게 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부합하다’는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라는 뜻이므로 ‘들어맞다’로 바꿔 쓸 수 있다.

[14 ~ 17] 인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62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술어 논리에 따르면 “어떤 S는 P이다.”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어떤 P는 S이다.”는 “집합 P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S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두 문장의 의미를 비교하였을 때, ‘집합 P의 원소’와 ‘집합 S의 원소’라는 단어의 순서만을 바꾼 것으로서, 의미 차이는 없다. 이는 <그림>에 있는 I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의 영역을 표시하는 ‘S’와 ‘P’의 위치만 바뀌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타당한 논증은 전체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논증이다. 따라서 타당한 정언 삼단 논증은 두 정언 문장의 참이 또 다른 정언 문장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

는 논증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즉 그는 ‘존재 가정’을 함으로써 S가 존재한다고 여겼고, 또한 ‘모든 S는 P이다.’는 “‘어떤 S’를 한 부분으로 포함하므로 전칭 긍정의 의미가 특칭 긍정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③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S는 P이다.”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결국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⑤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전칭 긍정 문장을 주장할 때 우리는 ‘존재 가정’을 하지 않는다. 즉 “모든 S는 P이다.”에는 ‘S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일각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술어 논리에 따라 “모든 일각수는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다.”라는 문장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5.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프레게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에서 두 술어 S와 P가 지칭하는 집합의 교집합(S∩P)에 ‘만’ 원소가 있다면,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므로 전칭 긍정은 참이 된다.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S∩P에는 원소가 있으므로 특칭 긍정도 참이다.

[오답풀이] ① 정언 삼단 논증의 전제들과 결론은 모두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전칭 긍정 “모든 S는 P이다.”로부터 특칭 긍정 “어떤 S는 P이다.”가 타당하게 추론된다. ③ 정언 문장은 집합들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문장으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프레게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S는 P이다.”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것은 “모든 x에 대하여, 만약 x가 S라면 x는 P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S와 P가 술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사람’과 ‘죽는 것’이 모두 술어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주장의 근거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I에 포함된 의미를 언급하면 이는 ㉔(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의 근거가 될 것이다. I는 “‘집합 S의 원소’인 것이 있다.”를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지만, A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I의 의미 전체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㉔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은 술어 논리를 따르는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다. 술어 논리에 따르면 A는 S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I는 S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③ 술어 논리에 따르면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되지 않는다. ④ 술어 논리에 따르면 I는 ‘집합 S’와 ‘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A는 그렇지 않다. ⑤ 선지의 진술 자체는 옳은 진술이다. A는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주장하지만 I는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A에 포함돼 있지만 I에 포함되지

않은 의미를 언급한 것으로서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의 근거가 되려면 A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I에 포함된 의미를 언급해야 한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의거해 <보기>의 논증을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정언 삼단 논증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타당성 검사 방법은, 두 전제의 의미를 표기했을 때 그곳에 이미 결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타당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어떤 S는 P이다.”라는 정언 삼단 논증에 적용해보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정답풀이] ㉠에서 결론을 “모든 S는 P이다.”로 교체한 새 논증인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모든 S는 P이다.”에 벤 다이어그램 방법을 적용해 보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된다. 첫 번째 전제의 의미를 표기하면 4와 7에 빗금이 표시되고 두 번째 전제의 의미를 표기하면 1과 2에 빗금이 표시된다. 그런데 결론인 “모든 S는 P이다.”의 의미는 1과 4에 빗금을 표시함으로써 표기되는데, 그것은 이미 두 전제의 표기 속에 담겨 있으므로 새 논증은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오답풀이] ㉡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M은 P이다.”는 집합 M이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M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S는 M이다.”는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참이다. 하지만 “어떤 S는 P이다.”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M과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거짓이다. ㉢ “모든 M은 P이다.”는 “집합 M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의미, 즉 “집합 M과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4와 7에 빗금을 표시함으로써 표기된다. ㉣ “모든 S는 M이다.”는 “집합 S와 ‘집합 M’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1과 2에 빗금을 표시함으로써 표기된다. ㉤ 만약 ㉡의 두 전제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기하였을 때 ‘원소가 있음’을 뜻하는 ‘※’ 표시가 2와 5 중 어느 곳에도 있다면, 이는 ㉡의 결론인 “어떤 S는 P이다.”의 의미가 이미 표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 표시가 2와 5 중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의 결론인 “어떤 S는 P이다.”의 의미가 이미 표기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8 ~ 21]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홍보전」 (수능완성 72쪽)

18.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면 놀보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박이 열리고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홍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이다. 또한 중략 이후 첫째 문단에서 놀보는 망보는 자에 의해 (비록 그것이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제비가 ‘박씨’를 물었음을 확인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놀보가 망보는 자에게 제비의 위치를 전해 듣는 상황은, 제비가 박씨를 물어 오면 자신 또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제비를 기다리는 놀보의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 홍보 부부는 제비가 주고 간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대화를 통해 그 물건, 즉 ‘박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었다. ‘박씨’의 출처나 박 안의 내용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또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부부가 언쟁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는 ‘저 제비 거동 보소.’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행동에 주목하기를 요청하는 서술자의 언급이 나타나 있지만, [A]에는 이와 같은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 [A]는 ‘~가/이 ~물고 ~는 듯’, [B]는 ‘~를 ~는 듯’의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있게 제비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 [A]에는 [B]와 달리 자신이 ‘작년에 다리 동여 주던 제비 오색 당사실 동여맨 흔적’에 주목하는 홍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0. [출제의도] 작품 속 구절의 의미나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홍보는 제비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박씨’를 주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 ‘박씨’가 훗날 자신에게 큰 부귀를 안겨 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의 ‘아무쪼록(= 될 수 있는 대로.)’에서는 혹시 모르니 일단 심어 보자는 정도의 작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박이 열리자 홍보는 ‘박속은 끊어 먹고 바가지는 팔아 썩세’라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홍보가 박에 대해 가진 기대가 큰 부귀가 아닌 생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소박한 기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제비가 ‘박씨’를 ‘물었’다고 망보는 자가 말하자, 놀보는 ‘반갑다’라고 하며 ‘돈 백 냥’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자세히 보아’ 줄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은 자신의 고무된 기분을 드러내며 동시에 상대방의 분발을 독려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 ㉡에서 ‘이놈’은 망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에서 서술자는 망보는 자를 ‘재주는 대단한 놈’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거짓으로 망보는 시늉을 했지만 때마침 우연히도 제비가 나타나게 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면, 놀보는 홍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직접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 따라서 박씨에 ‘원수 수 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제비가 놀보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에서 놀보는 이를 두고 ‘스스로 뜻을 풀어’ ‘비단 수 자를 원수 수 자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비단 수 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원수 수 자’와는 대비되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글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놀보가 다른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제비가 자신에게 보은을 하기 위해 박씨를 가져왔다고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에서 놀보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망보는 자가 제비의 여정을 읊는 도중 놀보가 번번이 끼어들어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놀보는 망보는

자의 말 사이사이에 돈을 더 내어 주며 그를 독려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어찌 되었나 보아라. 돈 백 냥 더 주마.’를 놀보가 망보는 자의 말에 끼어드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제비의 여정이 장황하게 진술되는 도중 놀보가 말을 한 것은 한 번뿐이므로 놀보가 번번이 끼어들었다고 할 수도 없다.

[오답풀이] ㉡ 홍보 부부가 ‘박씨’의 정체를 두고 ‘금’과 ‘옥’, 여러 열매 등을 언급하며 추측해 가는 과정은, 이후 ‘박씨’를 심고 박이 열리기까지 이어지는 서사의 전개를 지연시킴으로써 ‘박씨’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고조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술자는 홍보의 박과 놀보 박의 싹을 각각 ‘고마도 수영의 전선(= 전투에 쓰는 배.)’과 ‘큰 전선 닻줄(= 닻을 매대는 줄. 밧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등 전선과 관련된 대상에 빗대고 있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전란(임진왜란)을 거친 당대인들의 경험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남쪽에서 오는 제비를 북쪽에서 남하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이지만, 조선의 지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기에 흥미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망보는 자가 읊은 제비의 이동 경로는 실제 사실과는 어긋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조선의 지리에 대한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22 ~ 27] 현대소설 - 현대시 통합

→ 연계 지문 : 신경림, 「길」 (수능특강 93쪽)

→ 작가 연계 : 이수익, 「승천」 | 황석영, 「가객」 (수능완성 197쪽, 수능완성 172쪽)

22. [출제의도] 세 작품의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서사시적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서 ‘가인’이라는 인물이 겪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다)는 서사를 기본 축으로 하는 소설 갈래의 작품으로서 ‘수추’라는 인물이 겪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의 ‘사람들’은 특정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이들이 겪는 사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다)는 소설이므로 리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시는 연의 구분이 없더라도 행의 구분을 통하여, 또 시어와 시구의 반복과 변주 등을 통하여 리듬감을 창출해 낸다. ㉢ (나)의 제1연에는 스스로의 내면을 진술하는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반면 (다)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내면을 진술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가)의 ‘길’은 공간적 성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폭포수 아래’에 중심을 두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6연과 제7연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므로 특정한 공간에 한정하여 내용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다)는 중략 앞부분에서는 강 건너라는 공간을, 중략 뒷부분에서는 저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 전개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특정 공간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길’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와 ‘이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은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길의 뜻'은 '길'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여기는 발상의 결과 얻게 된 표층적 깨달음, 곧 '길'이 시련을 통해 세상살이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표층적 깨달음을 함축한 시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식의 전복을 거듭한 끝에 사람들이 얻게 된 최종적인 깨달음을 가리키는 시어가 아니다. 만약 이를 길의 진정한 뜻을 가리키는 시어로(즉, 최종적인 깨달음을 가리키는 시어로) 본다면, 선지 후반부의 내용과 충돌이 생긴다. (가)에서 제시된 최종적인 깨달음의 내용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시련에 맞서 이를 극복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길'이 사람에게 '낭패'를 겪게 해 '세상 사는/슬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길'을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발상의 결과 도출된 내용이다. 시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길'이 마주하게 하는 시련을 통해 세상살이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화자의 인식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 시는 최초로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난 발상과 그 결과를 제시한 뒤, 그것을 (화자가 제시하는 발상을 통해) 다시금 뒤집는 구조를 통하여, 시에 내포된 통찰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작품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처럼 발상의 결과를 재차 전복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지막 두 행은 시의 구조상 심층적 통찰의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때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진술에는, 제1행과 제2행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한편 여기서 '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길'을 통해 '세상 사는/슬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모습(즉, '길'을 여전히 도구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비하면, 더욱 겸손하고 겸허하게 느껴진다. 시인은 이를 통해, 삶에 있어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24. [출제의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서 '산'과 '폭포'는 모두 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물이라 할 수 있다(수직의 말씀만 내리실 뿐이다)를 통해 쏟아지는 '폭포'의 하강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자세를 흐뜨리지 않는' '준엄한 스승처럼 곧추앉'은 모습에서는 '폭포'가 정적인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인물의 좌절을 강조하는 것이지 인물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 [A]~[C]는 전체적으로 수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D]는 '하산'이라는 시어를 통해 수직적 하강의 이미지를 제시한 뒤, '흘러 다니면서'라는 시어를 통해 수평적 이동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수직에서 수평 이미지로의 전환을 통해 시상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5.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아는 사람'이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은 그러한 사람에게 '길'이 보이는 '고분고분'한 모습과 뒤에 이어지는 '꽃'의 '향기'나 시원한 '그늘' 등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한 이의 겸허하고 평화로운 내면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은 '수추'의 눈에 들어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한 결과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수추의 내면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수추가 '저 자신에게 들려나 주듯 흥얼거리는' '콧노래'나 '휘파람 소리'의 '곡조'를 사람들이 배워서 따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추가 저자의 사람들을 모아 노래를 가르친 것은 아니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목청에 핏물 어리도록 발성을 연습'한 '가인'은, <보기>에 따르면 예술 그 자체를 중시하는 예술의 관점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수추는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는 인물이지만,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모습을 보이며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자세가 나타난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관점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가인'은 '소리의 승천'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토해 내고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 모습은 예술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예술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이를 '핏빛 소리' 등의 시어로 형상화하여 미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③ (나)에서 '가인'은 '소리의 승천'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여 하산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가인'을 두고 '하늘이 내리신 소리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가인'이 성취한 예술적 경지가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의 완성을 향한 예술가의 지향이나 이를 이루지 못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지 못하는 대중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는 예술가의 본원적 고독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수추는 자신의 '노래'가 '절대로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록 다시 살아야 함을' 느낀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예술가의 좌절이라는 모티프를 민중을 향한 예술로의 전환의 계기로 그려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8~31] 고전시가

→ 연계 지문: 최현, 「용사음」(수능특강 295쪽)

→ 장경세, 「강호연군가」

28. [출제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3수> 중장의 '교목'은 나라를 떠받치는 인재를 상징하는 시어로서, 화자는 이 '교목'이 옛날과 같다고 했고, '신하'들도 '그득하'다고 했다. 즉, 나라를 보필할 인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중장에서 화자는 '의론이 여기저기 하'다는 말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에 대해

'그를 몰라 하노라'라며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의 '교목'과 '신하'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소재가 아니며, '몰라 하노라'에서 드러나는 정서 또한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제4수>에서 화자를 보고 '가장 반겨 말하시'는 '님'의 모습은 화자가 꿈속에서 만난 모습이다.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 그에게 '먹은 마음 다 사죄'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고려할 때, 중장에 제시된 '님'의 모습에는 자신을 보고 반겨 주기를 바라는, 즉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제4수> 중장의 '먹은 마음'은 화자가 '님'으로 표현된 임금에게 '날 새는 줄 모르'고 아뢰고 싶은 마음이다. 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먹은 마음'은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제3수> 초장의 '마음', 즉 '시절이 하 수상하'다는 근심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제6수> 초장에서 화자는 가을의 처량함과 쓸쓸함을 노래한 '송옥'을 '가을을 만나' 슬퍼한 것으로 표현하여 그의 슬픔을 가을이라는 한 계절에 한정해서 보고 있다. 반면 중장에서 화자 자신의 '근심'은 '봄가을이 없'이 지속된다고 함으로써 초장에 제시된 '송옥'의 슬픔보다 더 큰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 어순이 도치된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③ '살았으랴', '웁다더뇨', '믿을려냐'와 같은 서술어를 통해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조상 지킨 영토에 도적이 임자 되어'라며 현실에서 일어난 참상을 제시한 후에 '복선화음을 뉘라서 웁다더뇨/얼마나 어리석어야 이 하늘 믿을려냐'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시의 문맥상 '찬 서리 흰 이슬'이 가을이 되면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므로 슬퍼할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시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의 섭리나 법칙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은, 왜적의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의 '대책이 어쩔니 하늘'도 어쩔 수 없다는 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초월적 존재조차 돕기 힘든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시의 맥락상 나라를 떠받치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론이 여기저기'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은 '도적이 옛보'는 데도 짓지 않는 존재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둘은 모두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꿈에서 '님'을 만나는 곳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은 앞부분에 제시된 관리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왜적이 거침없이 진격을 하였는데, 높다고 하는 '조령과 추풍령'이나 깊은 '한강'도 이러한 왜적의 진군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히 높거나 깊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자가 극복해야 할 시련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하고많은 백관'들이 달아나기에 바빴음을 비판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데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31.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복선화음을 뒤라서 옳다더뇨'라는 말에는,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준다는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현실이 참혹하다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왜적에 의해 성인의 위패와 왕릉이 훼손당하고 국토 곳곳에서 사람들이 희생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화자는 '복선화음'에 대한 냉소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마음을 둘 데 없다'며 중신들 사이의 '의론이 여기저기 하'다고 탄식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의론이 여기저기' 분분한 모습은 당쟁으로 인해 조정 신하들이 분열된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에 당쟁으로 인한 현실 상황에 대해 근심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의 화자는 '김수'에 대해서는 성을 비운 것이 어리석다고 하고 있고, '신립'에 대해서는 '배수진'을 친 것이 우습다고 하고 있다. (신립은 천혜의 요새인 문경새재에 진을 치고 왜적과 싸우자는 부하들의 충고를 뿌리치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는 전술을 선택한 결과 대패하고 말았다.) 이는 실존 인물인 '김수'와 '신립'을 각각 그들의 실제 행적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 34] 시나리오

→연계 지문: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경비 구역 JSA」(수능완성 80쪽)

32. [출제의도]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52에서 수혁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간 것은 북측 초소에 오라는 편지를 받았기 때문인데, S#53에서는 우진이 경필 몰래 '장난삼아' 이 편지를 보냈으며 그 때문에 수혁이 북측 초소를 방문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오답풀이] ① S#50에서 수혁은 북측 초소의 경필과 우진에게 편지를 보내려 하고 있다. S#54에서 우진은 술과 안주를 병커에 있는 경필과 수혁에게 전하는데, S#55를 볼 때 이 행동은 수혁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S#54에서의 우진의 행동을 통해 S#50에서의 수혁의 시도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암시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⑤ S#55는 수혁이 처음 북측으로 넘어온 S#52, 53의 사건 이후 시간이 한참 경과한 시점으로서, 그사이 수혁이 '병장'으로 진급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S#55의 제시된 지문상으로는 수혁이 북측으로 처음 넘어온 S#52, 53의 사건은 화제에 오르고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특정 장면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S#50은 '편지 왕래의 몽타주'이다. 어휘 풀이를 참고할 때, 이 장면은 수혁과 북측 병사들 사이의 편지 왕래와 관련된 장면들을 결합하여 이들 사이의 교류가 진전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고 볼 수 있다. S#50은 수혁이 북측을 향해 편지를 보내는 장면, 북측으로부터 경필의 답장이 도착하고 수혁이 그것을 읽는 장면, 비가 오는 밤 수혁이 비닐로 포장된 편지를 발견하고 읽는 장면이 결합된 것이다. '달빛에 편지를 읽'는 장면과 '비를 쫓막 맞으며' 편지를 찾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점과 경필이 편지에서 '니 편지 받고 맘이 설레서 한숨 못 잤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수혁과 경필의 왕래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50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수혁과 경필은 편지에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고향이나 취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상 표현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북측 초소 내부에 있는 수혁의 모습은, 그의 '어깨 너머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남 초소'가 보인다는 것에서 북측 초소 안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시간 자막이 나타난 다음, '남쪽에서 바라본 북 초소'와 그 안에 있는 수혁이 '커튼을 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수혁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놓고 북에서 남을 향해 촬영한 화면과 남에서 북을 향해 촬영한 화면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다. 즉 [B]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두 화면을 연결한 부분이다.

[오답풀이] ⑤ [C]에서 우진이 바다 가운데 있는 손잡이를 들어 올리자 '바닥이 네모나게 열리면서 사람 하나 겨우 드나들 만한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초소 바닥에 있는 지하 병커의 출입구인 이 구멍을 화면에 보여 주어서 지하에 위치한 공간의 존재를 부각하려면,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여야 할 것이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연계 지문: 수능특강 18쪽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어컨 사용 시 냉방병에 걸리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냉방병 예방을 위한 에어컨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도 '첫째', '둘째', '셋째'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강연을 의뢰하는 전자 우편을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이 강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질환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에어컨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나 세균의 번식을 들고 있지만, 냉방병을 유발하는 곰팡이나 세균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7. [출제의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듣기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이런 증상'을 언급한 것은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냉방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지 궁금해한 것이다. 이는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증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은 강연 내용을 '개념', '원인', '예방법' 세 가지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를 볼 때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여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학생은 '냉방병이 의심될 땐 ~ 언급된 누리집을 방문해 찾아봐야겠어.'라고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방문해서 찾아보라는 강연자의 제안에 대해 실천을 결심한 것이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연계 지문: 수능특강 108쪽

38. [출제의도] 토론에서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반대 측은 입론에서 '음식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알려 주기 때문에 음식점 별점 평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측은 공통으로 ④를 인정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입론에 반영된 토론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입론에서 '음식점 별점 평가 제도란 지도나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자들이 별의 개수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낮은 별점을 부여하는 소비자들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와 평가 조작 등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식점 별점 평가 제도의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토론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반론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별점 평가가 음식이나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주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들어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별점 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많다는 '찬성 1'의 주장에 대해 반대로 점주들이 좋은 별점 평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반대 1'이 언급한 보완책이 도입되었음에도 조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찬성 1'이 입론에서 제시한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상대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1.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는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유나 글을 쓰게 된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 논제로 채택하였다.'라고 토론회의 논제가 채택된 배경과 그 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③ '토론회 이후 찾아본 배달 앱 이용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점주가 부

당한 피해를 ~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본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후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⑤ '토론회 방청은 ~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제시한 후 '앞으로도 ~ 참석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밝히고 있다.

42. [출제의도] 토론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별점만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별점 평가가 점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필자의 평가는 별점 평가와 점주의 이익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들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니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45쪽

43. [출제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4>는 특정 기업의 새로 출시된 저지방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음평을 담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우유 대체 식물성 음료라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우유 대체 식물성 음료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종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작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자료 2>는 연구소의 연간 보고서로 출처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6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연간 보고서이므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첫 문장에서 우유 대체 식물성 음료를 본 적이 있는지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그에 대해 답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조언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에서 제시한 소비자들이 우유 대체 식물성 음료를 구매하는 이유는 건강에 이롭다는 것과 친환경적이라는 것,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점 등 세 가지이다. 조언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독자에게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우유 대체 식물성 음료를 맛볼 것을 권'하고 있는 ②가 적절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07쪽
'ㄱ'과 'ㄷ'는 모두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지는 원순 모음이다. 하지만 'ㄱ'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앞쪽에, 'ㄷ'는 입천장 뒤쪽에 놓인다.

[오답풀이] ①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ㅏ, ㅑ'뿐이다. 'ㅕ, ㅓ' 모두 원순 모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저모음일수록 입

이 벌어지는 각도는 점점 더 커진다. 'ㅕ'는 저모음에, 'ㅓ'는 중모음에 해당하므로 'ㅓ'를 발음할 때에는 'ㅕ'를 발음할 때보다 입이 벌어지는 각도가 작다. ⑤ 'ㅓ'는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ㅡ'는 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알맞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6쪽

'ㅁ술'과 '나ㄱ내'는 '마을'과 '나그네'로 변하면서 둘째 음절의 'ㅁ'가 'ㄴ'로 변화하였다. 또한, 모음 조화가 지켜졌던 'ㅁ술'과 '나ㄱ내'와는 달리, '마을'과 '나그네'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오답풀이] ③, ⑤ '벼슬>벼슬'은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섯달>선달'은 ㉠과 ㉡의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 '여드래>여드래'는 ㉠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7. [출제의도] 문장을 통해 관형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8쪽

㉠에는 체언 '우리가', ㉡에는 체언 '막내'가 관형어로 기능한다. '우리'는 '마을'을, '막내'는 '누나'를 수식한다.

[오답풀이] ① ㉠에는 관형사가 쓰이지 않았다. ㉡에는 관형사 '몹쓸'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에는 안긴문장 '학생인'과 '아직 공부할'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에는 서술격 조사에 어미가 결합한 관형어가 없다. ㉡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에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어 '교사인'이 있다.

38.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6쪽

'더운데 아이는 나가겠다고 한다.'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오답풀이] ①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는 ㉡의 예문으로 쓸 수 있다. ③ '혼자 이걸 전부 먹을 수 있겠어?'는 ㉡의 예문으로 쓸 수 있다. ④ '지금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겠다.'는 ㉠의 예문으로 쓸 수 있다. ⑤ '모두가 떠나도 나는 여기에 남겠어.'의 '-겠-'은 ㉡의 예문으로 쓸 수 있다.

39. [출제의도]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쓰인 경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8쪽

㉠의 '연결시켜'는 '연결해'로, ㉡의 '단축시켰다'는 '단축했다'로, ㉢의 '촉진시킨다'는 '촉진한다'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경우엔 '-시키다'보다는 '-하다'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

[오답풀이] ⑤ ㉡의 '변화시켰다'를 '변화했다'로, ㉢의 '단축시켰다'를 '단축했다'로 바꿀 경우, 의미도 안 맞고 비문이 된다. 이 경우엔 사동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22쪽

40.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활용된 장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장면 5]에서 정보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여 시청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와 환수 문화재의 수를 정리한 것이 아니다. 표를 통해 전시회의 제목과 전시 기간, 전시 장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41.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관형사절을 사용하여 '나전 상자'가 '국내에 몇 점 남아 있지 않'다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형사절을 활용하여 '나전 상자'의 환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42.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를 시청한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청자 1은 뉴스에서 환수 문화재 40여 점 가운데 6점만을 소개했음을 언급하며 몇 점 더 소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시청자 3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어보' 이외의 다른 문화재들에 관한 반출 시기와 경위를 궁금해하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특별전에 전시된 문화재에 관해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시청자 5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시청자 2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시청자 4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3. [출제의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매체 수용자는 블로그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생산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다른 매체로 전달할 수 있다. (나)의 댓글을 보면 매체 수용자가 ○○ 박물관 공식 블로그의 게시물을 교내 SNS에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수용자가 공유하기를 통해 게시물의 정보를 다른 매체의 이용자인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인터넷 신문 매체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9쪽

(가)에서 표제로 제시된 '□□구,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아이스 팩 수거 나서'와 부제로 제시된 '8월부터 주민 센터마다 전용 수거함 설치해 아이스 팩 재사용 도모'를 통해 해당 기사가 '아이스 팩 수거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카드 뉴스 생산에 반영된 학생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9쪽

(나)의 '카드 3'에서는 (가)에서 제시한 수거 대상인 아이스 팩에 대한 정보 이외에 수거 대상이 아닌 아이스 팩의 종류와 배출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여 정보가 보충되도록 하고 있다. 수거 대상이 아닌 아이스 팩을 수거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한 것은 아니다.